

















landscape of landscape

전시는 두 작가가 참여합니다. 각각 조각과 회화를 다루는 강재원, 임노식 작가는 공간 혹은 풍경을 나름의 시선과 방식으로 재구성합니다.

〈풍경의 풍경〉은 두 작가가 만들어낸 새로운 덩어리들이 한 공간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부)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연관성 없는 덩어리들을 집적하여 종래의 목적을 감춘 거대한 조각품, 굴절되어 맺어진 관찰자의 시선이 어딘가 모르게 이질적인 풍경들. 두 작가가 작업을 통해 구축한 공간 혹은 풍경은 잘 엮인 하나의 서사를 구성하기보다 각각의 영역을 침범하고 타협하는 방식으로 공존해 있습니다. 강재원의 조각이 전시 공간 내부를 점유하는 부피로써, 널브러진 공간을 재단하는 도구로써 하나의 풍경을 구축했다면 임노식의 회화는 외부 공간을 재구성하여 전시 공간의 느슨한 틈새를 비집고 자리한 또 다른 풍경입니다. 그러나 이 두 풍경의 중첩은 완성된 가공품이라기 보단 서로를 분해하고 다시 끼워 맞추는 조립식 가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작업은 이렇게 나뉘고 재결합되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영역을 유지하며 나름의 질서로 관계합니다.

그러나 두 풍경의 경계는 좀처럼 체감되지 않습니다. 한 공간 안에 늘어진 둘 사이의 긴장이 결국 어떠한 형태를 남기고 채우는지 또한 쉬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풍경이 풍경을 넘어서지 않고 감각되기를 거듭할 때, 전시는 또 다른 무엇의 풍경(공간)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17.02.07 tue - 17.02.14 tue